

2021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공모지원사업 심의총평

2021년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공모지원사업은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심의 과정을 걸쳐 세 분의 심의위원과 면밀히 검토하여 총 6개 접수된 기초재단 대상에서 총 4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올해로 본격적으로 2년차를 맞이하는 성인대상 예술교육프로그램 거점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참여 3개의 기초문화재단과 3개의 신규 지원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 인터뷰 심의결과 성남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4개 거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은 2020년에 이어 2년차 진입하는 기초문화재단으로 지역성, 문화공간, 지역예술인 참여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획이 고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하남문화재단은 작년사업과의 연속성을 살리고, 지역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1년차의 성과를 이어 2년차의 방향의 구체적인 제시 미흡 및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보완한 밀도 있는 기획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3년차의 향방을 조율하는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위원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신규로는 평택시문화재단이 선정되어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의 불모지였던 평택시 지역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기초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은 이후 거점확대를 예정하고 있어, 설립되고 있는 기초문화재단들을 신규 참여를 감안한다면 올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기초문화재단들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시민예술학교는 향후 경기도민들이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 민병은(문화집합 36.5 대표)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오상훈(단국대학교 부교수)